

## Dr. Robert Vannoy, Kings, 강의 7

© 2012, Dr. Robert Vannoy, Dr. Perry Phillips, Ted Hildebrandt

### Solomon - 다시 이집트로, 마음이 우상숭배로 변하다

#### F. 1. 흠이 있는 평화

2. 전환점 -- 열왕기상 9:26-10:25 3. 애굽으로 돌아가기 - 열왕기상 10:26-29

우리는 여전히 “F”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흠 있는 화평” (열왕기상 9:10~2)과 “전환점” (9:26-10:25)을 살펴보았습니다. “F” 아래의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집트로 돌아가기”라고 부를 것이다.

자, 다음 섹션은 10장 26-29절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솔로몬이 병거와 말을 모았다. 병거 1400대와 말이 12,000마리 있었는데 병거성에도 두었고 예루살렘에도 함께 두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산기슭의 뽕나무 같이 많이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은 이집트와 쿠에에서 수입되었는데, 왕의 상인들은 그것을 쿠에에게서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병거 한 대를 은 600세겔에 수입하고 말 한 마리를 은 150세겔에 수입하여 헷 사람과 아람 사람의 왕들에게도 수출하였느니라.”

이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솔로몬이 병거와 말 무역의

중개인인 것 같습니다. 그는 말 한 마리에 150세겔에 말을 샀지만 여기서의 단순한 사업 계약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실제로 한 일은 오늘날 무기와 군비의 국제적 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들은 군용 무기였습니다. 당시의 전차는 오늘날의 전차였습니다. 그들은 군사 도구였습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왕으로 여겨졌으나 그는 병거와 말의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왕이 자기를 위하여 말을 많이 두지 말며 말을 더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16절입니다 .

솔로몬은 이 말 무역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26절에서 그가 자신을 위해 말과 병거를 모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1400대의 병거와 12,000마리의 말을 가졌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의 추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이웃 나라들에는 상당한 수의 병거와 말이 있었고, 솔로몬은 분명히 이웃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을 갖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것을 성경적 관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 당시로 돌아가면 이집트인들이 병거와 말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다.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엄밀한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했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앞서 우리는 정복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수많은 병거와 말을 보유한 군대에 맞서 왔다고 논의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4절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을 필두로 왕들이 연합하여 모든 군대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여호수아를 치러 나온 큰 군대를 읽습니다. 해변의 모래. 그러나 이스라엘에 병거와 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다시 그 왕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이 장 뒷부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탈취한 것을 읽으면 그것이 14절입니다. 나는 이 장의 맥락에서 이전에 여러분에게 언급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6절에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직접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병거와 말들을 취하여 그들 자신의 군대에 통합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주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약함 속의 강함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이 군대와 자신의 힘과 힘보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스라엘이 주변의 모든 민족의

군대와 동등한 군대를 만들고 군대를 만든다면 필연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보다 군대의 안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요점은 주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사 시설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주위에 있는 민족들과 비교하여 그들은 약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으며, 바로 그렇게 그들은 주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생각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약성경 문맥에서 찾을 수 있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12:10에서 같은 원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대에 강하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요점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 외에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원, 무엇이든 우리 자신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원을 바라보고 그것에 의존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가려지고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은 많은 형태와 변형을 가집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무력하고 약한 것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시고

강하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맥으로 돌아가려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그녀는 군대를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했으며 주님은 그들이 순종하고 충실한 한 그 안전을 보장하셨습니다.

성경의 말과 병거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긴 것 같습니다 . 사사기 4장 을 보면 병거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 있습니다. 사사기 4:3, 가나안 사람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3절에 보면 “그가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압제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 도와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은 900대의 병거와 보병만 있는 시스라와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7절에서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기손 강으로 유인하여 네 손에 붙이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내러티브를 읽으면 정확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14절과 다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가라! 이 날은 주님께서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보다 앞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을 따라 다볼 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락이 진격하자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칼로 패주시키시니 시스라는 그의 병거를 버리고 도보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락은 병거와 군대를 하로셋학고임까지 추격했습니다.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칼에 얹드러졌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니다.”

왕권이 확립된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사울이 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은 말과 병거와 마주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3, 4절을 보면 다윗이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 가에서 세력을 회복하러 갔을 때 그와 싸웠다고 합니다. 다윗은 병거 천 대와 마병 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100마리의 병거 말을 제외하고 모두 발목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비할 만한 대항력이 없었으나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대부분의 경우 그는 병거와 말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그는 그들 중 백 명을 구했습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이 이러한 것들을 본 방식에 대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시편 20편에서 백성들은 왕에게 말하며 그들의 기도를 승리를 위한 왕의 기도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7절에서 왕이 말하고 있는 곳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다윗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무릎을 꿇지 만 우리는 일어나 굳건히 섭니다. ” 그래서 다윗은 그 말 몇 마리를 제외한 모든 말의

힘줄을 끊었고 아마도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병거를 파괴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말의 번식에 관한 신명기의 왕의 법과 상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힘은 주변 국가의 힘에 비할 바가 아니었지만 여기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병거 1400대와 말이 12,000마리 있었습니다. 당시 군대에 대해 알려진 주변 국가와 정말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는 솔로몬에게 이 원칙은 더 이상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른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데 원칙은 내가 충분히 큰 군대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세상 왕의 특징 중 하나를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언약적 왕이 가져야 할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를 따르는 모든 왕들에게 계속되는 패턴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을 보면 이사야는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보물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땅은 말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병거는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땅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과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낮아지고 인류는 낮아질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이사야가 거기에서 언급한 은과 금, 말과 병거, 우상을 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것들은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의 율법에 다시 반영되어 이스라엘이 멀리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부를 늘리고 강한 군대를 세우려 했고 결국 그 역시 우상에게로 향했습니다.

## 열왕기상 11 장

좋아, "결론"인 "G"로 가자. 그것은 11장입니다. 거기에 당신의 시트에 있는 두 개의 하위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1-13절). 신명기 17장에서 솔로몬이 왕의 율법에 있는 두 가지 금지 사항인 말을 번성하고 재물을 불어나게 한 것을 보면 솔로몬이 신명기 11장에 이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 셋째도 어겼으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을 좇게 할 것임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으로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명문가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를 타락시켰습니다.”

가볍게 말하면 큰 하렘입니다. 그러나 다시, 당신이 보는 것은



그의 왕권이 다른 고대 근동 궁정의 패턴과 관습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대부분 이방 여자였던 것 같으며, 아마도 그들 중 많은 수가 정치적 동맹과 관련하여 솔로몬의 하렘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민족들이었다.” 모세 오경으로 돌아가면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2절 후반절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여 굳게 붙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 합의 이상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2-4절에서 “마음”이라는 용어가 몇 번이나 사용되었는지는 놀랍습니다. 다섯 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정녕 너희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하리라 하시고 3절에 “그가 왕비 칠백 명과 후궁 삼백 명을 두었더니 그 아내들이 그를 미혹하였더라. 솔로몬이 늙으매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3절 끝에 있는 “그의 아내들이 그를 그릇되게 인도하였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문자 그대로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입니다. NIV 번역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 New King James는 “그의 마음을 돌이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몇 구절에서 “마음”을 다섯 번 보게 됩니다.

심장은 우리 존재의 중심 또는 핵심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 생명의 샘이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 결정된 것은 삶에서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올바르면 인생이 그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마음을 빗나가게 한다면 그것은 또한 삶에 반영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아내들은 그의 생각과 내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영향 아래서 그는 그들의 이교 신들을 따르고 그들을 위해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5절을 보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가증한 신 몰렉을 따랐더라. 솔로몬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타국인 아내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이교도 신들을 위해 이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솔로몬 자신이 그 제단에 제물을 바쳤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읽지 않지만 그가 한 일은 충분히 심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방인의 예배를 예루살렘 동편의 성전 부근에 정당한 장소로 주었으니 이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의 제단을 헐어야 한다는 언약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파괴하는 대신에 그분은 그것들을 건축하도록 공급하십니다.

그 시점에서 당신은 솔로몬의 삶에 초기부터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두 번이나 나타나심을 저버렸음이라” 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돌아섰습니다.

4절에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하지 아니하니라” 고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히브리어 용어 “그의 마음이 온전히 헌신되지 않았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은 *샬렘입니다*. 그것은 “샬롬”과 같은 어근이고 솔로몬의 이름과 같은 어근입니다. 기본 어근 단어는 단어 *shalem* *입니다*. 글썄요,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점은 완전하다, 건전하다, 건전하다, 조화되다 등의 어원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툼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솔로몬 왕국 초기에 그의 왕국은 다툼이 없고, 온전하고, 건전하고,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평화를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그 어원과 관련된 솔로몬의 이름은 온전함과 다툼이 없는 조건을 가져오는

그의 사명 또는 임무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건전한 상태, 즉 평화의 왕국을 만드는 방식으로 통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온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여 마음의 조화와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그 분열이 그의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이 스스로 작동하여 왕국에도 분열과 불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 열왕기상 9:4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이었습니다. 한 가지가 다른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9장에서 그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공고 9:4: “네가 마음의 온전함과 올바름으로 내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릇된 길을 가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끊어 버리겠다.” 그는 그것에 대해 경고를 받았지만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래서 11장으로 돌아가서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마음이 이러하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찢어 버리리라. 당신에게서

떼어 당신 부하 중 한 사람에게 주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매우 명백합니다. 솔로몬은 진정한 언약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 많은 여자들과 결혼한 후에 그의 마음이 그릇된

길로 인도되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준비한 것을 보십시오.

2. 솔로몬의 대적들 - 열왕기상 11:14-25          그것은 이 결론

아래에서 번호 “2” 를 가져오며, 그것은 “솔로몬의 대적들, 14-25절,

11장” 입니다. 이 부분에서 당신은 솔로몬에 대한 여호와와의 진노의

신호를 얻었고 그 신호는 이 대적들의 활동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14절) . 우리는 이 사람이 다윗 시대에

에돔에서 도망쳐 애굽으로 피난하여 사실상 애굽 파라오의 가족과

결혼했다는 기록을 읽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이집트에서 에돔으로

돌아왔고 다윗이 에돔 사람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노엽게 하는 표시로 일으켜

세우신 적이 바로 그 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상 11장 23절에서 읽을 수 있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마스쿠스를 장악했고, 25절에서

르손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다고 읽습니다. 이제

다메섹은 물론 북쪽에 있습니다. 에돔은 남동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측면에서 솔로몬에게 적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르손이 있던 다메섹은 역사를 통틀어 이스라엘의 적으로 남아 있었고, 항상 투쟁의 원천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메섹과 이스라엘은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솔로몬 시대에 이 두 반대자의 부상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원칙 은 솔로몬이 우상을 허용할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하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상대로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주님께서 이방 국가를 사용하여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을 일관되게 발견합니다. 나중에 그는 바빌론과 아시리아를 사용합니다.

메시아적 이상왕의 등장      네, 그 정도에서 멈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솔로몬 왕국의 끝으로 인도합니다. 나는 솔로몬의 왕국이 열왕기의 모든 추종자들을 위한 무대를 실제로 설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로몬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고 솔로몬에 대한 기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언약적 왕의 이상에 부응할 수 없었고 그의 왕국에는 결함이 있음을 솔로몬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한 일들은

더욱 뚜렷해지고 심각해질 것이며, 신명기의 언약적 심판이 실현되는 것은 거의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추세가 시작되면서, 특히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 사이에서 진정한 언약적 왕에 대한 메시아적 이상이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 맥락에서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지상의 인간 통치자들을 그렇게 많이 바라보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왕국을 세우실 때를 바라보게 합니다.

좋아, 여기서 멈추자. 다음 주에는 로마 II로 넘어갈 것이고, 다음 주에는 옴리와 아합 왕조까지 내려갈 수 있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Katharine Adamyk 작성

러프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Perry Phillips 박사가 다시 설명함